

활자 시대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동묘시장 내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돋보기 안경을 기자가 직접 착용해보고 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랴. 시작은 늘 두렵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무엇인가를 잘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일찍이 머리로는 느꼈지만 뒤늦게 마음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고하고 싶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라고 말이다. 그래서 시작했다. 무엇을? 유튜브를.

지난해 10월, 경제부에서 스토리콘텐츠부로 자리를 옮겼다. 마냥 생소했다. 스토리콘텐츠부가 어떤 부서이고 하

니, 스토리와 콘텐츠를 합친 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부서인 셈이다. 친숙했지만 굉장한 낯섦과 마주해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호기심에서 익숙함으로 변화해가는 시기를 겪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미 달라졌다. 요즘은 모든 사람의 손에 카메라가 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콘텐츠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 톡톡 튀는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열을 올린다. 그 중심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유튜브는 친숙하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도전, 도전 그리고 도전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 매일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세상이 도래했다. 유튜브가 세상에 나오면서 우리를 인도했고, 또 그렇게 만들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유튜브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 일상 속에 교묘히 아니 대놓고 스며들었다. 스토리콘텐츠부는 이러한 유튜브와 맥을 같이했다.

요즘은 기자라고 해서 펜대만 굴리지 않는다. 유튜브를 통해 출입처와 관련된 영상 또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신문기자로서 수년간 펜대만 굴리다가, 영상 속으로 내 몸을 내던지자니 영 어색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잠재의식 속엔 영상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꿈틀거렸다. 영상의 영 자도 모르는 나에게 뭘지 모를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 이르는

말)이랄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러했다.

틈이 날 때마다 영상을 떠올렸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색깔을 입힐지. 미래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시간과 공간의 틈 사이에서 힘겨운 숨을 내쉴 때마다 생각의 꼬리를 이어갔다. 기본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영상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그러한 경험이 없기에 새로운 감각도 없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안을 대략적으로 구상한 후에 친숙한 후배와 함께 황금 같은 주말까지 내어가며 테스트 영상 제작에 돌입했다.

영상 제작의 특징은 딱히 없었다. 어떤 게 먹힐지(독자들의 반응을 끌어올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콘셉트로 단순히 많이 찍어보자는 식이었다. 나름대로 며칠을 구상한 끝에 카메라 한 대만을 어깨에 덜렁 둘러멘 채 광화문과 가까운 동묘를 찾았다. 참고로 이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거침없이 확산될 때라 건강상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챙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동묘를 선택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 회사와 가까웠고 볼거리가 풍성했다. 멋쩍지만 그냥

단순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남녀노소, 나이 불문 다양한 세대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리가 그곳을 찾았던 날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을 만큼 습기가 가득했다. 첫 촬영 날,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날씨와는 달리 기분은 몹시 상쾌했다.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말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예의 바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듯 웃으면서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다가간다면 그 누구도 모질게 대하지 않는다. 간혹 예외도 있지만 말이다(하하하). 결국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첫 촬영 날을 돌이켜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뻔주뻔 동묘 주변만 맴돌던 모습이 떠오른다(피식).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야’라고 되뇌이며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마주하게 됐다. 움츠리거나 숨고 싶지 않았다. 두려움은 나의 동행자로 인식했다.



동묘시장에서 집화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이 동묘시장의 매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그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두려움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채워진다는 점도 깨달았다.

동묘의 굵이굵이 갈라진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곱상한 어린아이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까지 여러 사람들과 마주했다. 서로 다른 생김새와 말투 그리고 행동들. 그 속엔 그들의 삶이 느껴졌다. 인터뷰를 위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부터 마치 이웃사촌을 만난 듯 파스하게 맞아주시는 분들까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더욱 뚜렷이 담겨 있다.

내가 만약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에 대한 답부터 구한 다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면, 아직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내 존재에 대한 고민만 계속하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경험으로 볼 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에서 내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 쭉쭉쭉 망설임 시간에 뭐라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살아간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꿈에 조상님이 나오셔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줘봤자, 결국 로또를 구입하지 않으면 당

첨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넓고 깊은 의미가 자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기획은 스스로 만드는 것

우여곡절 끝에 10분짜리 영상이 탄생했다. 기쁨의 순간이었다(히히). 사실,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알맹이보다는 편집의 힘이 컸다. 4시간 이상의 촬영 본을 10분짜리로 압축하는 작업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았다. 해당 영상은 편집이 인공호흡기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자리를 빌려 편집에 힘을 더해준 승완이



재미있는 동물 캐릭터 의상을 입고 각종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상인과 과자의 맛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후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 영상은 편집이 먹여 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멋쩍은 웃음)

그런데 말이다. 완성된 영상을 보고 또 보아도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맴돌았다. 정보와 재미, 매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보자면 딱히 어느 한쪽에도 해당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을까. 사실상 재미를 추구하자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려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경직되고 딱딱한 기자의 본성이 어디 가랴. 뭔가 어색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인 회사 선배에게 도움을 청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찾아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선배와의 대화는

5분도 채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 그럴 경우 두 가지의 결과로 나뉜다. 아주 속 시원하게 대화가 잘 통했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의 경우 말이다. 이번 경우는 후자였다. 선배는 빙긋한 웃음을 머금으며 내게 조곤조곤 조언을 건넸다. 그러나 내가 조심스레 건네 보인 영상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우리 둘의 대화는 5분 만에 끝이 났다. 독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마치 속이 쓰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곤 한숨이 폭 하고 절로 나왔다.

“왜...”라는 혼잣말과 함께 잠시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그때의 상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뎠다. 나는 다시 이런저런 영상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이었다. 회사 내 복도를 지날 때였던 것 같다. 한 선배가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봐.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만, 마음속에 감춰진 두려움을 던지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자신감 넘치는 너를 만나게 될 거야”라고 말이다.

나를 일으켜 세워준 고마운 말이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뭉클한 감정이

동묘시장에서 20년 동안 의류점을 운영한 70대 상인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숨구쳤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겨났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한들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한편으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속도도 무시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아무튼 나만의 개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나만의 타이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쓰레기도 최초로 만들면 명품이 된다는 말처럼 말이다.

퐁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

과거엔 ‘퐁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는 말이 ‘감이 없다’는 비하의 뜻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퐁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그 경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직접 먹어봐야 제맛을 알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재창조를 이룰 수도 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

동묘시장 내 젊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소매 의류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켓에 대해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



동묘시장 한켠에 화려하게 전시된 각종 명품 의류 및 가방



지하철 한켠에 표시된 1호선 동묘앞역 출구 표지판

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몰라서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 그건 유튜브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더 잘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걸 채우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나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런 노력이 서서히 빛을 뿜어내길 바란다.

4시간 동안 동묘를 거닐며 발품을 팔

았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무엇보다 10분짜리 영상을 제작하려면 3시간 50분의 노력은 편집 과정에서 버려지고 사라진다. 쓴맛이 강한 커피인 에스프레소에도 신맛과 단맛이 있다고 한다. 단맛을 느끼려면 그보다 먼저 쓴맛을 맛봐야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나의 영상도 단맛을 뿜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선뜻 시간을 내어준 승완이(후배)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고이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요즘 ‘안 하는 것은 있어도 못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한껏 자신감이 불었다. 올 한 해 내게 가장 강한 주문과 같은 말인 ‘뭐든 할 수 있다’를 떠올리며 마무리한다. 🙏